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9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19.(화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	박정미 과장(044-203-5090)	담 당 자	문성용 사무관(044-203-5694)

중국 주요 지역 봉쇄 확산에 대비하여 진출기업 및 공급망 영향 점검

- 상하이 인근으로 봉쇄지역 확대·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방안 논의 -
- 현지·국내 조기경보시스템(EWS)의 센싱(Sensing) 기능 강화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4.19(화)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**'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회의'**를 개최함

○ 금번 회의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**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가 장기화**되고 있는 상황에서 **중국 현지 공관 상무관, 유관기관들과 기업 애로, 공급망·물류 영향을 점검**하기 위해 개최됨

【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회의 개요 】

▸ **일시/장소** : '22.4.19(화) 16:00~17:30 / 코트라(상무관·무역관 등 화상 연결)
▸ **참석자** : (정부)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(주재), 통상협력국장, 동북아통상과장, 무역정책과장, 소부장총괄과장, 실물경제긴급지원반 과장
(공관) 중국·상하이·광저우·홍콩 상무관
(기관)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, 난징·항저우·칭다오·톈진·창춘·시안 무역관, 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, 베이징·상하이 지부 등

□ 3월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짐*에 따라, 정부는 **우리 산업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중**임

* 지린성 창춘시, 산둥성 웨이하이시, 광둥성 선전시 등

○ 특히, 세계 1위 항만 도시인 상하이 봉쇄(3.28) 이후 **업종별 협단체, 유관기관 등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***해 왔으며, 우리 기업 조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**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 중**임

* 제22차 산업자원안보 TF(3.29), 코트라 중국 코로나19 확산 점검 회의(4.1) 등

□ 현재 중국 內 **대부분의 확진자가 상하이에서 발생 중**인 상황으로 (지난주 총 확진자의 95%), 상하이市는 **단계적 봉쇄 조치***를 시행 중임

* 상하이 시민 전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쇄/관리/예방 등 3단계별 방역 정책 시행

○ 주원석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은 **상하이 항만·공항의 물류 기능이 상당히 약화**된 상황이며, 최근 **상하이市가 반도체·자동차 등 중점 업종의 조업 재개를 추진**하고 있으나, 방역과 물류 상황을 고려시 본격적인 **생산 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**으로 평가함

○ 홍창표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장은 상하이 인근 **장쑤성·저장성 등 지역**의 경우 **반도체, 배터리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**되어 있는 만큼, **동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대**된다면 **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**으로 우려함

- 현재는 **장쑤성 쑤저우**(쿤산市 등), **저장성 자싱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 제한 조치가 시행 중**인 상황으로, **여타 지역으로의 확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시 대응**해 나가기로 함

- 한편, 코트라는 우리 중소·중견 기업의 물류 애로 경감을 위해 **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 및 운송비 지원* 서비스를 제공 중**임을 밝힘

* 내륙 운송비 총액에서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 50% 지원 (총액 기준 1,000만원 한도)

□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"중국 내 방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**상무관·유관기관들에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**과 함께 **최일선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**을 해줄 것"을 당부함

○ 아울러 "정부는 **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고도화**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**조기경보시스템**(EWS)에 대한 **현장의 애로·건의사항을 적극 반영**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"이라고 강조함

○ 이에,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은 "상시적·전문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**글로벌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**를 취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"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문성용 사무관(☎ 044-203-56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